

2011. 1. 3 제254호

# 세계도시동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 세계도시동향

2011. 1. 3 제254호

## 산업·경제

1. 민관 합동으로 장기발전계획 수립 (영국 리버풀市)
2. '비즈니스 향상 지구'를 지정해 중심상업지역 개선 (런던)
3. 유럽 최고의 '스마트 시티'로 부상 (영국 맨체스터市)
4. '매력적인 경제입지 만들기' 사업 추진 (베를린)
5. 2010년 연간 관광객 숙박횟수 2000만 회 달성 (베를린)

## 건강·복지

6. 건강 불평등 개선전략 수립 (런던)
7. 새로운 복지서비스 성과평가 시스템 도입 (영국 카디프市)
8. '나이 제한'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책자 발간 (베를린)

---

## 행정 · 재정

- 9. 세계 최고의 수도로 만들기 위해 홍보청 설립 추진 (런던)
- 10. 기존 사업을 조정해 예산 약 9000억 원 절감 (뉴욕)
- 11. 복지서비스와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중점 투자 (파리)
- 12. 3년 연속 예산규모 감소 (도쿄)

## 도시교통

- 13.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미래형 택시 선정 (뉴욕)
-

## 산 업 · 경 제

### 1. 민관 합동으로 장기발전계획 수립 (영국 리버풀市)

○ 영국 리버풀市는 기업, 문화, 도시 재생, 교육,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와 함께 수립한 장기발전계획 ‘One Plan’을 2010년 12월 15일 발표함. 이 발전계획은 민관 합동으로 만든 최초 계획임. 리버풀을 국제적으로 으뜸가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분야별 강·약점을 분석하고 이를 한 단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

- 市는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의 전문가로 파트너십 (Liverpool Vision)을 구성함. 산하조직으로는 민간과 공공 기관을 아우르면서 사업을 주도할 실무 전담반과 장소 마케팅을 펼쳐 리버풀의 존재감을 알리는 데 주력할 마케팅 활성화반이 있음. 이 파트너십은 2011년 4월부터 기존 파트너십 조직이자 ‘유럽 문화수도 리버풀’ 사업 전담부서(Culture Liverpool)를 흡수해 리버풀을 이끄는 새로운 거버넌스 조직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 파트너십은 발전계획을 총괄하는 등 명실상부한 집행기관으로 자리 잡을 예정임. 우선 2011년 리버풀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할 ‘리버풀 대사관’을 런던에 설치하고 보트 쇼, 머지강(江) 축제, 박물관 건립 등 문화사업도 시행함. 대학, 상공회의소, 박물관 등 각 부문에서 제안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市 정책으로 흡수하는 창구 역할도 수행함. 또한 연구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학 연계 기금을 운영함.

-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가 모여 도시 발전방향을 공동 모색하고 세

부 정책을 집행하는 파트너십으로 유럽 문화수도 지정 후 문화와 연계해 도시 발전을 모색했던 경험을 한 단계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됨. 장기발전계획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2011년 4월 최종 확정됨.

([www.liverpool.gov.uk/news/newsdetail\\_2623.asp](http://www.liverpool.gov.uk/news/newsdetail_2623.asp))

#### 미국 내에서 최고 디지털도시로 선정 (미국 보스턴市)

- 미국 전자정부센터는 2010년 미국 내 도시 중에서 IT 기술을 가장 성공적으로 활용하는 전자정부로 보스턴市를 선정함. 보스턴은 교육, 치안, 환경, 열린 정부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음. 전자정부센터는 우수 전자정부를 매년 선정해 발표하고 있음.
- 市는 웹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학교, 도서관, 커뮤니티 관리사무소 등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하도록 하고 관련 교육도 실시함.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도시 치안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시간을 최소화함.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IT 기술 개발에 더욱 집중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설을 확보함. 시민이 더 쉽게 도시정부에 접근하도록 하고 중요한 결정은 빠른 시간 안에 웹으로 공개함. 또한 市는 인프라 구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과 계층을 중심으로 서비스 확장에 힘씀.

([www.cityofboston.gov/news/Default.aspx?id=4873](http://www.cityofboston.gov/news/Default.aspx?id=4873))

## 2. '비즈니스 향상 지구'를 지정해 중심상업지역 개선 (런던)

○ 런던시는 '비즈니스 향상 지구'(Business Improvement District)를 23개 지정해 지구 내 기업이 중심이 되어 중심상업지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함. 시는 이를 위해 기업이 펀드를 조성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로젝트를 시행하도록 장려함. 시는 이 프로그램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다고 강조함.

- 시는 지구를 지정한 이후 매년 우수 지구에 상을 수여함. 2010년 12월에 열린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5개 지구의 주요 성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자전거 이용자와 대형 화물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운전 프로그램을 실시해 교통사고 발생률을 크게 낮춤.
- 쓰레기 매립량을 대폭 감축하기 위해 지구 내 기업에 재활용 무료 서비스를 제공함.
- 지역의 젊은이가 손쉽게 창업하도록 지속적으로 조언하고 전문지식을 제공함.
- 중심상가인 옥스퍼드와 리젠트 거리를 하루 동안 보행자 전용도로로 운영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함.
- 한 주 동안 35시간의 추가 치안서비스를 실시하고 런던 최초로 커뮤니티 치안 지대(Community Security Zone)를 설치함.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mayor-honours-business-improvement-districts-first-annual-awards-event](http://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mayor-honours-business-improvement-districts-first-annual-awards-event))

### 3. 유럽 최고의 ‘스마트 시티’로 부상 (영국 맨체스터市)

○ 영국 맨체스터市는 유럽연합이 2억 파운드(약 3532억 원) 예산을 투입해 유럽 전역에서 실시하는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의장 도시로 선정됨. 이에 시민과 기업은 혁신적인 인터넷 기반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생활 및 기업 환경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 市는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첨단기술산업을 활성화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미래형 인터넷서비스 실험실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함.

- 市는 2010년 12월부터 2년간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맨체스터 대학, 유명 인터넷 프로그램 개발자 등과 함께 파트너십을 구축함. 이 프로젝트는 시민이 도보나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 중에 무선인터넷으로 실시간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인터넷 연결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하는 데 집중할 예정임.

· 장비 설치가 완료되면 시민들은 대기 질, 실외 온도, 교통상황, 버스 및 전차 이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피드백과 모니터링도 즉각 할 수 있음. 페이스북, 트위터, 각종 블로그로 수렴한 시민 의견은 市와 대중교통 운영업체가 서비스를 개선하고 수요자 친화적인 교통계획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市는 혁신적인 인터넷 서비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스마트 시티’ 파트너 도시인 겐트(벨기에), 볼로냐(이탈리아), 울루(핀란드) 등과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임. 市는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영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녹색도시로 탈바꿈될 것으로 기대함.

([www.manchester.gov.uk/news/article/5818/manchester\\_takes\\_the\\_lead\\_among\\_european\\_smart\\_cities](http://www.manchester.gov.uk/news/article/5818/manchester_takes_the_lead_among_european_smart_cities))

#### 4. '매력적인 경제입지 만들기' 사업 추진 (베를린)

○ 생산비가 싼 외국으로 본사나 공장을 옮기는 기업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 이에 베를린市는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고 기존 기업의 이전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2009년 말부터 시행함. 베를린의 경제 활성화와 해외마케팅 사업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市가 설립한 베를린 파트너社가 이 사업을 주관함. 이 회사는 市 요청으로 착수한 기업서비스 사업, 해외 영업 지원 사업, 수도 마케팅 사업의 1년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2010년 12월 20일 마련함.

- 베를린으로 이주한 회사, 기존 회사, 새롭게 문을 연 회사를 위한 포괄적인 기업서비스 사업은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인 활동을 살펴보면 ① 창업하려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무실 공간과 공장부지 선정 상담, ② 자금 융통 지원, ③ 전문인력 소개, ④ 관청업무 대행, ⑤ 필요한 협력기관·기업·조직과의 만남 주선, ⑥ 연구소의 기술 이전 안내, ⑦ 해외 영업 지원 등임.

· 성과 보고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베를린에서 105개 회사가 새롭게 설립되었거나 규모를 확장하였고 이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가 4777개 창출됨. 이들 회사의 투자액을 다 합치면 약 2억 9800만 유로(약 4482억 원)에 이르는데 이는 2009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임.

- 해외 마케팅 지원 활동을 살펴보면, ① 한 해 동안 12개 국제박람회에 독일 부스를 만들고, ② 市 경제홍보팀에서 해외 순회 홍보행사를 조직함.



- 수도 이미지 캠페인으로는 市 기념탑 보수기간에 베를린을 빛낸 204명의 얼굴을 크게 인쇄한 탑 가리개를 설치해 관광객에게 수도 베를린의 이미지를 심어줌. 또한 중국과 런던에서 ‘베를린의 날’ 행사를 열고, ‘함께 만드는 베를린의 미래’란 슬로건으로 12개 기업과 함께 산업 관련 캠페인을 펼침.
- 기업이 적극 참여해 사업을 지원하도록 유도한 점도 큰 성과로 평가받음. 2010년 167개 기업이 스폰서로 참여해 총 400만 유로(약 60억 원)를 수도 마케팅 사업에 지원함. 그 중 27개 스폰서는 과학 분야에 속함. 베를린 파트너사는 ‘경제와 과학의 만남’이란 주제로 ‘Business Needs Science’ 시리즈 행사를 제약회사, 출판사, 인쇄회사 등을 돌리며 개최함.

([www.berlin.de/sen/wtf/presse/archiv/20101220.1110.323709.html](http://www.berlin.de/sen/wtf/presse/archiv/20101220.1110.323709.html))

#### ‘노숙 끝내기’ 프로그램 시행 (런던)

- 런던시는 2012년까지 노숙자가 한 명도 존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숙 끝내기’ 프로그램을 시행 중임. 우선 올해 겨울철에 거리와 지하철역에서 잠을 청하는 사람이 없도록 할 방침임. 이를 위해 市는 긴급 자금을 확보하고 노숙자 자선단체와 상의해 사용처를 정할 예정임.
- 노숙자를 위한 자선단체인 크라이시스(Crisis)는 8개 센터를 개방해 2500명의 노숙자를 수용할 계획임. 학습, 진료, 주택, 일자리와 같은 서비스도 제공함. 市가 이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205명이 노숙에서 벗어나는 성과를 거둠.

([www.london.gov.uk/press\\_releases/mayor-of-london](http://www.london.gov.uk/press_releases/mayor-of-london))

## 5. 2010년 연간 관광객 숙박횟수 2000만 회 달성 (베를린)

○ 베를린市는 2010년 한 해 2000만 번째 숙박 등록을 한 관광객을 초청해 기념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12월 16일 개최함. 이날 행사에서 베를린 시장은 연간 1000만 회의 관광객 숙박 기록을 2000년에 달성한 이후 10년 만에 2000만 회의 관광객 숙박 기록을 달성한 것은 베를린이 관광도시로서 위상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함.

- 市는 그동안 도시 관광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침. 2010년 8월 반년간의 관광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6개월 동안 이미 420만 명의 관광객이 베를린을 방문해 2009년 하반기보다 11.7% 증가함. 숙박횟수도 1000만 회에 이르러 2009년 하반기와 비교하면 약 14.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관광객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관광은 중요한 산업분야로 자리 잡음. 관광업종 종사자도 이미 25만 명에 이름. 市는 관광업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관광업의 성장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지기 위해 모든 관광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보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www.berlin.de/rbmskzl/rathausaktuell/archiv/2010/12/16/323706/index.html](http://www.berlin.de/rbmskzl/rathausaktuell/archiv/2010/12/16/323706/index.html))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10/08/12/306125/index.html](http://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10/08/12/306125/index.html))

## 건 강 · 복 지

### 6. 건강 불평등 개선전략 수립 (런던)

- 런던市는 건강 불평등 개선전략을 처음으로 수립함. 개선전략은 시민의 건강뿐 아니라 건강과 관련한 삶의 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종합적이면서도 세밀한 이행계획을 포함함.
- 건강 불평등이란 주요한 건강 결정요인의 차이로 전반적 또는 부분적으로 개인의 건강상태와 기대수명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함. 결정요인은 ① 주거·교통서비스·공공안전 수준, ② 취업 전망 및 경제적 성공을 도모하는 능력, ③ 공공서비스 접근성 정도, ④ 흡연과 음주 빈도 등 건강에 해가 되는 생활방식, ⑤ 유전적·생물학적 요인은 아니지만 기대수명과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으로 구분됨.
- 개선전략은 향후 20년 이상 장기계획으로 4년마다 수정·보완함. 2010년 가을에 수립한 이행계획은 중·단기 계획으로 ①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 ② 이해당사자 참여, ③ 공공 협의 등의 원칙을 토대로 작성했으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갱신함. 이번 개선전략은 기존 정책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해 ① 지역에서 시행 중인 효과적인 사업 확인 및 촉진, ② 건강 불평등이 심화된 지역과 집단 지원 확대, ③ 다른 프로그램과의 연계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개선전략의 주요 목표는 아래와 같음.
  - 개인과 지역사회 역량 강화: 개인과 지역사회가 지식, 기술,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건강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관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함.

- 질 높은 건강·사회보육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 건강·사회보육 서비스기관과 협력해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함으로써 건강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둠.
- 소득 불평등과 건강 문제: 런던은 영국의 다른 지역보다 소득 불평등이 큰 도시로 이를 개선하는 것이 빈곤층의 열악한 건강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됨. 빈곤층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 장애인 취업환경 개선, 숙련노동자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시민이 소득보조금과 연금을 적절하게 수령하도록 지원함.
- 건강과 일자리 문제: 노동은 소득 창출을 넘어서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초점을 맞춤. 즉, 노동에 대한 태도 변화를 유도해 건강수준도 변화하게 함. 취업 장애요인 제거, 일하는 공간 환경 개선, 무급 직장에 대한 인식 개선, 자원봉사 기회 증진 정책을 펼쳐나감.
- 市는 그동안 개선전략 수립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건강증진 그룹, 런던 의회연합회, 기업, 학자, 지역사회단체, 시민 등과 함께 논의해왔음.

([www.london.gov.uk/priorities/health/tackling-inequality](http://www.london.gov.uk/priorities/health/tackling-inequality))

## 7. 새로운 복지서비스 성과평가 시스템 도입 (영국 카디프市)

○ 영국 카디프市 등 웨일즈 지방 내 22개 지자체와 웨일즈 정부는 새로운 복지서비스 분야 성과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매년 평가를 수행함. 지자체가 5년마다 종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던 종합평가 제도와 매년 지자체별로 자체평가서를 작성해 웨일즈 정부 보육·사회서비스 조사단에 제출했던 성과평가 절차를 없애고 이 시스템을 도입함.

- 이전 시스템은 자체평가서 작성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취합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새로운 평가시스템은 지자체가 더 큰 책임감으로 복지서비스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둬. 지자체는 매년 평가보증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보육·사회서비스 조사단에 제공해야 함.
- 카디프市는 2010년 말 새로운 평가시스템으로 첫 성과평가를 진행해 세부 평가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함. 보고서는 현장 증거, 효과 분석, 혁신을 위한 비즈니스 계획 시스템 등을 포괄함. 성과평가는 공개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복지서비스 수혜자, 복지기관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이해당사자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성과평가 보고서를 제공함.
  - 이번 성과평가 보고서에서는 ① 취약계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②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파트너십을 맺어 민주적 협력을 추구하고 복지서비스 수혜자의 필요에 즉각 대응하며, ③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증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아울러 복지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을 파악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복지서비스 개선 프로그램인 ‘미래 만들기’ 계획을 시행함.

- 市는 성과평가로 파악한 문제점을 ‘어른과 어린이 서비스 비즈니스 계획’ 등 관련 계획과 정책에 반영함.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복지서비스 제공방식과 市 정책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수혜자와 일반시민 의견을 수렴함.

([www.cardiff.gov.uk/content.asp?nav=2867,2904,3441,6199&parent\\_directory\\_id=2865&id=10920&d1p1=1](http://www.cardiff.gov.uk/content.asp?nav=2867,2904,3441,6199&parent_directory_id=2865&id=10920&d1p1=1))

#### 50세 이상 장년층과 노인이 참여하는 정기 토론회 개최 (영국 레스터市)

- 영국 레스터市는 50세 이상 장년층과 노인이 스스로 고령사회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정기 토론회모임을 조직해 운영함. 6주마다 시청에서 열리며 市 전체 정책 속에서 노인정책이 녹아들어 가도록 포괄적인 접근방식을 취함. 최근에는 지역 교통계획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함.
- 市는 매년 9월을 ‘노인의 달’로 정해 노인정책 토론회, 체육대회, 오락 및 건강 관련 행사 등을 펼침. 공개토론 프로그램은 市 정책이나 사업의 개선 방안에 대해 스스로없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음. 이밖에도 글쓰기, 그림, 원예 교실 등도 열림.

([news.leicester.gov.uk/newsArchiveDetail.aspx?Id=505](http://news.leicester.gov.uk/newsArchiveDetail.aspx?Id=505))

## 8. ‘나이 제한’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책자 발간 (베를린)

○ 시민사회나 직장, 특정 서비스분야에서 ‘너무 어려서’ 또는 ‘너무 늙어서’란 이유를 들어 취업이나 참여를 제한하려는 행위는 어느 사회든 일반적인 현상임. 나이 제한은 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함. 독일에서는 67세 정년법에 의거해 정년이 연장됨으로써 정부의 연금 지급도 늦어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나이 제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베를린市 반차별 운동본부는 2010년 9월 베를린 법규에 들어있는 나이 제한 문제를 검토한 뒤 市 통합·노동·사회청과 함께 ‘측정대에 오른 나이 제한’이란 책자를 발간함. 이 책자에서는 실제 나이보다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에게 나이 제한은 차별적인 조치이며, 사람의 젊음과 늙음의 정도를 나이 하나로 일정하게 규정짓는 행위가 과학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함.

- 市는 책자 출간을 계기로 관료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젊음과 늙음의 다양한 상에 부합하는 적절한 기준을 과학계와 학계, 시민사회 분야와 공동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힘.

([www.berlin.de/sen/ias/presse/archiv/20101222.1315.324006.html](http://www.berlin.de/sen/ias/presse/archiv/20101222.1315.324006.html))

### 9. 세계 최고의 수도로 만들기 위해 홍보청 설립 추진 (런던)

○ 런던市는 런던을 세계 최고의 수도로 만들기 위해 관광, 내부 투자, 국제학생 관련 업무를 각각 담당하던 3개 기관을 하나로 합쳐 런던 홍보청을 설립할 계획임. 홍보청 설립계획은 보수당·자유당 연합정부와 런던市 간 협상에서 최종 결정됨. 홍보청은 앞으로 런던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도 수행함.

- Think London, Study London, Visit London 등 기존 조직이 2011년 4월 통합됨. 홍보청은 해외홍보를 좀 더 조직적이고 전략적으로 수행할 계획임. 市는 홍보청이 런던 경제의 동력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함.

· 市는 관광, 내부투자,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여전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힘. 홍보청은 런던이 경제활동을 하기 좋은 세계적인 도시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임. 특히 2012년 런던 올림픽을 경제성장의 새로운 도약대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또한 런던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통합적이고 일관된 도시정책을 펼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힘.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mayor-announces-single-new-promotion-agency-london](http://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mayor-announces-single-new-promotion-agency-london))



## 10. 기존 사업을 조정해 예산 약 9000억 원 절감 (뉴욕)

○ 뉴욕시는 2011년도 예산규모가 총 72조 원으로 기존 사업을 조정해 약 9000억 원의 예산을 줄였다고 최근 발표함. 전체 예산에서 약 3조 8000억 원은 2010년도에서 이월된 것으로 지난 3년간 긴축예산을 효과적으로 편성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힘. 시는 세금 인상은 하지 않을 계획임.

- 州정부의 예산 지원이 현저하게 줄어든 상황에서 도시정부의 자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2011년도 예산은 긴축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부문 간 형평성과 균형도 고려함.
- 뉴욕시를 비롯해 뉴욕주 주요 도시에서는 州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교육부문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음. 기존 사업에서 예산을 많이 줄인 순으로 정리해보면 ① 도서관 시스템 보조금 삭감, ② 소방서 인력 감축, ③ 어린이·청소년 보호시설 축소, ④ 영어교육 프로그램 중단, ⑤ 노인시설 50개소 폐쇄, ⑥ 초등학교 양호교사 감축, ⑦ 노숙자를 위한 24시간 서비스센터 폐쇄, ⑧ 도시공원 내 수영장 폐쇄, ⑨ 맨해튼 지역 주차요금 인상 순으로 나타남.
- 시는 그밖에도 연금과 의료보험 관련 비용 인상 속도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 중임. 뉴욕은 소득세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긴축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임.

([www.nyc.gov/html/omb/html/publications/finplan05\\_10.shtml](http://www.nyc.gov/html/omb/html/publications/finplan05_10.shtml))

([www.nyc.gov/html/omb/downloads/pdf/sum5\\_10.pdf](http://www.nyc.gov/html/omb/downloads/pdf/sum5_10.pdf))

## 11. 복지서비스와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중점 투자 (파리)

○ 파리는 복지서비스와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중점을 두고 2011년도 예산안을 편성함. 市는 사회간접자본 확충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하고, 경제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복지분야 예산을 증액함.

- 복지분야 중에서도 주택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세부 계획을 시행함. 먼저 2011년에는 6000개의 준주거지역에 예산을 투입해 수입의 30%를 차지하는 월세 지출을 줄이도록 할 계획임. 市는 이미 노인이나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 정책을 발표한 바 있음. 市는 전기자동차 대여 서비스, 레 알(Les Halles) 지역 정비, 어린이집 신설 및 확충, 녹지대 조성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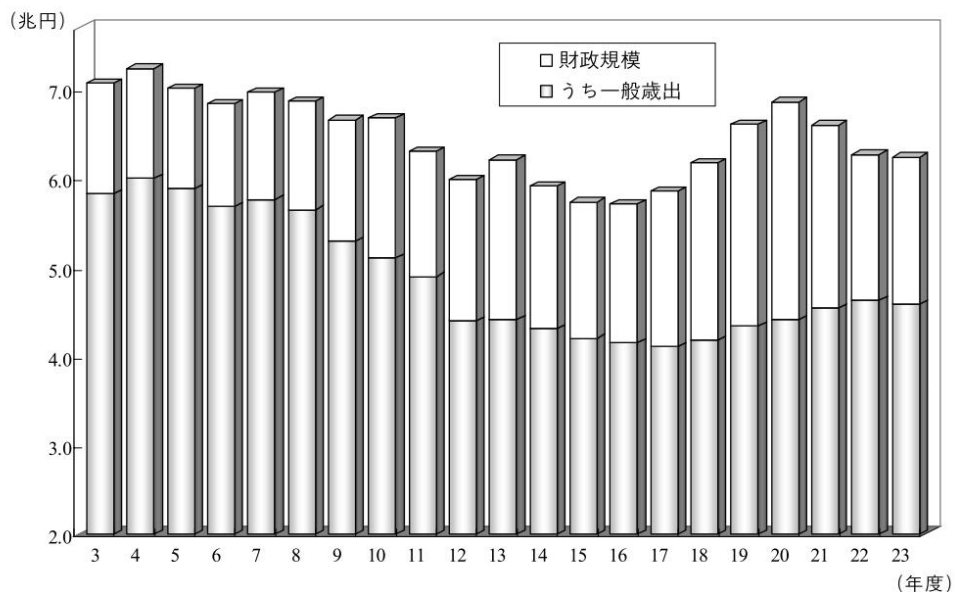
- 市는 2011년도 예산 편성 시 다양성과 사회 연대라는 시장(市長)의 모토를 공공정책에 조화롭게 반영하고자 노력함. 특히 기반시설 관리나 현대화에 목표를 두고 매년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임.

([www.paris.fr/portail/accueil/Portal.lut?page\\_id=1&document\\_type\\_id=2&document\\_id=94228&portlet\\_id=24329](http://www.paris.fr/portail/accueil/Portal.lut?page_id=1&document_type_id=2&document_id=94228&portlet_id=24329))

## 12. 3년 연속 예산규모 감소 (도쿄)

○ 도쿄都는 2010년 12월 24일 헤이세이 23년도(2011. 4~2012. 3) 예산 원안을 발표함. 일반회계 총액은 전년도(2010. 4~2011. 3) 대비 0.4% 감소한 6조 2360억 엔(약 86조 7577억 원)으로 3년 연속 감소함. 도세(都税) 수입은 전년도 대비 1.7% 소폭 증가하였으나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전전년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4조 2205억 엔(약 58조 4514억 원)이 될 전망이다. 정책 경비 성격인 일반세출은 전년도 대비 1% 감소한 4조 5839억 엔(약 63조 4842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기업 수익 개선으로 도세 수입이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해외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엔고의 영향으로 전년도 대비 692억 엔(약 9583억 원)이 증가한 것에 그침. 법인세도 전년도 대비 3.5% 증가한 1조 3010억 엔(약 18조 180억 원)에 그침.



<도쿄都 재정규모 및 일반세출 추이(일반회계 당초 예산)>

- 일반 세출은 전년도 대비 1% 감소한 4조 5839억 엔(약 63조 4842억 원)으로 6년 만에 감소하였으며, 공채비(公債費)는 전년도 대비 1.1% 감소한 4800억 엔(약 6조 6477억 원)이 됨.

([www.zaimu.metro.tokyo.jp/syukei1/zaisei/23nendo\\_yosannogaiyou\\_genan.pdf](http://www.zaimu.metro.tokyo.jp/syukei1/zaisei/23nendo_yosannogaiyou_genan.pdf))

## 도 시 교 통

### 13.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미래형 택시 선정 (뉴욕)

- 뉴욕市는 택시가 수백만 명의 관광객은 물론 시민에게 도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미래형 택시를 구상함. 런던의 2층 버스나 택시처럼 도시를 상징하는 대표 명물로 만들기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임. 실제 뉴욕의 노란색 택시 캐릭터는 자유의 여신상,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다음으로 가장 인기 있는 기념품임.
- 미래형 택시는 ① 최고 안전기준, ② 승객 승차감 개선, ③ 운전자 안전 강화, ④ 적정 운영·유지비용, ⑤ 지속가능성 및 환경성, ⑥ 장애인 이용 편의성, ⑦ 뉴욕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기준으로 해 제작될 예정임.
- 市는 미래형 택시 선정을 위해 2009년에 자동차회사로부터 디자인안을 제안 받아 1차로 34개를 선정함. 이후 요금수준, 이용빈도, 선호요인, 현 택시의 문제점, 택시 이용 이유, 주요 개선사항 등을 중심으로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시행한 뒤 3개 디자인을 최종 선정함.



<최종 선정된 미래형 택시 디자인>

([www.nyc.gov/html/tlc/html/misc/taxi\\_of\\_tomorrow.shtml](http://www.nyc.gov/html/tlc/html/misc/taxi_of_tomorrow.shtml))